



칠석(七夕)... 견우직녀의 사랑 이야기

강 욱

자유기고가

어느새 무더위의 계절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산과 들에도, 도심 한복판에도 푸르른 생기가 넘쳐흐른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만큼이나 정열적이고 매력적인 계절. 이것이 여름이 아닐까 싶다.

그 중에서도 7월은 '여름나기'가 괜찮다는 계절이다. 아직 물오르지 않은 더위만큼이나 사람들 역시 지치지 않을 때이다. 그렇다면 과연 옛 조상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우리 조상들은 7월은 비단 그냥 넘어가는 달이 아니었다. 바로 칠석(七夕)이라는 중요한 세시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칠석은 음력 7월 7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발렌타인데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유래는 중국의 속절(俗節)이 고려에 전해진 것에서 찾는다.

어린 시절 재미있게 보았던 동화책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무릎 위에서 들었던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전설. 슬프고도 아름

다웠던 그 전설이 바로 칠석의 모태(母胎)이다. 애절한 사랑만큼이나 잠 못 이루는 한여름 밤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칠석. 이는 천상(天上)과 지상(地上)을 연결하는 풍속으로 발전하게 된다.

견우와 직녀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하늘의 목동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가 지나치게 사랑에 빠져 게으름만 피웠다. 이에 노한 옥황상제(玉皇上帝)는 그들을 은하수 동·서쪽 끝에 각각 떨어져 살게 하였다. 애태우는 두 남녀를 보다 못한 까치와 까마귀들이 매년 칠석날 밤이면 상제 몰래 하늘로 날아가 날개를 펼쳐 오작교(烏鵲橋)를 놓아 그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칠석날 아침에 비가 내리면 견우직녀 상봉의 눈물ियो, 저녁에 비가 내리면 이별의 눈물이라 하였다는 것이 전설의 줄거리다.

이 전설은 중국 한(漢)나라에서 고려에 전해져 공민왕은 왕후와 함께 대궐 내정에

서 견우성과 직녀성에 제사를 드렸다. 그 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궁중에서도 이날 잔치를 벌이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일제(節日製)의 과거를 베풀었다.

특히 민간에서는 이 날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칠월칠석날에 비가 오거나 흐린 경우가 생기는 것도 다 견우와 직녀의 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달리 실제로는 천체(天體)의 운행(運行)에서는 견우별과 직녀별의 각(角)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단순히 두 별이 이쯤에 초저녁 하늘 가운데 뜨기 때문에 시야에 가득 들어오는 것이고, 7월 7일이 양수(陽數)가 겹치는 왕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무렵은 바쁜 농사 일이 어느 정도 끝나고 더위도 한풀 꺾이는 때였다. 그래서 여름 내내 입었던 옷을 빨아 햇볕에 말리곤 했다. 그 이유는 여름철 장마가 지난 뒤에 습기가 차거나 쭈뼌이 먹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신기하게도 이 날 옷과 책을 말리면 일 년 내내 상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다고 한다.

좀더 칠석의 풍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대표적인 풍속으로 여자들이 길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직녀성에게 빈 것을 들 수 있다. 이 날 새벽에 부녀자들은 참외, 오이 등의 초과류(草菓類)를 상위에 놓고 절을 하며 여공(女功 : 길쌈질)이 늘기를 빌었다. 잠시 후에 상을 보아 음식상 위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하늘에 있는 선녀가 소원을 들어주었으므로 여공이 늘 것이라고 기뻐했다.

비단 부녀자들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마을 서낭당에 가서 가족들의 무병장수와 집안의 평안을 기원했다. 처녀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은 다음, 그 위에 고운 재를 평평하게 담은 쟁반을 올려놓고 바느질 재주가 있게 해 달라고 빌었다. 다음날 재 위에 무엇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영험이었다고 믿었다. 또 글공부하는 서당소년들은 별을 보며 시를 짓거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칠석날의 절식으로는 밀국수와 밀전병이 있다. 이 날이 지나고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밀가루 음식은 칠 지난 것으로서 밀 냄새가 난다고 하여 꺼려했다. 그래서 밀국수와 밀전병은 반드시 상에 올랐다. 곧 칠석이 마지막 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더위가 약간 줄어든 이 시절에는 오이와 호박이 잘 열려 호박부침을 즐겨 만들어 먹고 칠성당(七星堂) 재(齋)에 올리기도 했다. 오이김치나 복숭아, 수박으로 과일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특이한 풍속으로는 집집마다 우물을 퍼내어 청결히 한 다음 시루떡을 해서 우물에 두고 제를 지냈던 전라도 지방의 '시암제'를 꼽을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고유의 생활풍습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활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칠석날은 오랫동안 옛 조상들이 지켜온 명절이며 행사의 하나였다. 특히 칠석날의 전설에 담겨져 있

는 아름다운 인간의 정은 우리의 얼을 찾
고 이해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아쉽게도
오늘날은 다양한 생활주기와 가치관의 변

화 속에서 옛 칠석의 풍속이 점차 잊혀지
고 있다.